MÉXICO 수이시문

2022.09.19 월요일

PERIÓDICO COREANO EN MÉXICO www.haninsinmun.com **f** haninsinmun

haninsinmun@gmail.com 55 5522-5026 / 55 5789-2967



멕시코 정부, 청정 에너지 강조하면서 화석에 의존

민간 부문을 희생시키면서 CFE(국영전기회사)와 국영 석유 회사 인 Pemex를 강화하려는 에너지 민족주의자인 Lopez Obrador 대 통령은 궁극적으로 청정 에너지 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줄이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 정책적 모순에 빠져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베라크루즈에서 열린 에너지 컨 퍼런스에서 세나스의 리카르도 모타 팔로미노(Ricardo Mota Palomino) 사장이 발표한 데이터 에 따르면 국영 전력회사는 1월과 7월 사이에 석탄으로 9,248기가 와트시(GWh)의 전력을 생산했으 며, 이는 2021년 같은 기간에 비 해 무려 54.7% 증가한 수치다.

이는 연방 전력 위원회(CFE)의



전력 생산을 위한 석탄 사용이 올 해 첫 7개월 동안 크게 증가한 반 면, 태양열이나 풍력발전으로 생 산되는 두 가지 주요 청정 에너지 재생 가능 자원의 사용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은 총 10,100GWh로 2021년 첫 7개월 에 비해 3% 감소한 반면 풍력 발 전은 12,504GWh로 0.1% 감소했

다. 태양열과 풍력의 총 GWh는 석탄보다 높지만 CFE는 가스 및 연료유와 같은 재생 불가능한 다 른 자원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고 의 2/3를 재생 가능하지 않은 에 너지로 생성했다.

가장 큰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은 수력으로 회사 총 생산량의 26%에 불과했다. 에너지 전문가 인 카를로스 플로레스(Carlos Flores)는 "정부가 재생 불가능한 오염원을 재생 가능한 것으로 대 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수력 발전소가 에너지 전환의 해결책 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풍력과 태양열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CFE(연방 전력위원회)는 많은 탄광이 있는 Coahuila에 2개, Guerrero에 1개 등 3개의 발전소 에서 석탄을 사용하여 전력을 생 산하고 있다.

현 멕시코 정부는 청정 에너지로 있는데 작년에도 CFE 전력의 거 의 전환을 늘 강조하면서도 다국 적 기업들의 투자로 생산되는 전 력의 공급망을 끊는 등 자국 기업 우선 이라는 모순된 정책으로 앞 으로도 상당기간 이같은 화석연 료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 으로 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Pozole o Chiles en nogada?, 두 개의 상징적인 독립기념일 요리

멕시코는 불꽃놀이, 연설, 깃발 로 독립 기념일을 축하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다.

독립 기념일 시즌에 먹는 여러 요리도 있지만 국가 요리의 보 물로 여겨지는 것은 두 가지, pozole와 chiles en nogada다.

이들 요리는 멕시코 독립을 의 미하는 상징적인 요리로 두 요 리 모두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

첫 번째, chiles en nogada는 휴일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데 그 시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명한 후 그와 그의 군대를 위해 요리라고 믿고 있다. 스페인 역



설이 있지만 푸에블라의 산타 모니카 수너원의 수너들이 스페 인으로부터 멕시코의 독립을 이 끈 군사 영웅이었던 Agustin de Iturbide가 코르도바 협정에 서

유력한 설이다.

음식을 만든 수녀들은 군대가 들고 있는 국기를 상징하는 색 석류 씨와 파슬리를 뿌려 빨간 색, 흰색 및 녹색 깃발의 모든 색상을 나타낸 것이다.

Pozole는 멕시코 역사에서 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부 역사가들은 전국적으로 수십 가 지 종류가 있는 이 유명한 국가 요리가 Moctezuma 황제와 같 은 통치자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특별한 요리를 만든 것이 가장 사가 Bernardino de Sahagun 은 이 특별한 요리가 원래 사람 의 인육, 정확히는 오른쪽 넓적 다리와 함께 제공되었다고 주장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왕이 적의 힘을 흡수하기 위한 의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록했다.

> 실제, 스페인 침략 군인이었던 Nuno Beltran de Guzman은 Jalisco의 Tonala에 도착했을 때 인육이 들어 있는 비슷한 요 리를 제공받았다고 기록하고 있 다. (관련기사 4면)

| 2022 법정 공휴일 | DÍAS FESTIVOS OFICIALES (Días de descanso obligatorios) | |
|-------------------------------|---|--|
| 1월 01일 신년 | 5월 10일 어머니 날* | |
| 2월 07일 헌법의 날 | 9월 16일 독립기념일 | |
| 3월 21일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일 | 11월 2일 망자의 날* | |
| 4월 14일-16일 부활절* | 11월 21일 혁명기념일 | |
| 5월 1일 노동절 |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축일* | |
| 5월 5일 뿌에블라 전승기념일* | 12월 25일 성탄절 | |
| (*비공식: 일반적으로 휴무이나 법정 공휴일은 아님) | | |

| 환율 정보 (오전10:00분 현재 - Banamex) | | | |
|-------------------------------|-------|-------------|-------|
| 멕시코 페소 / USD | | 한국 원화 / USD | |
| 살 때 | 19.38 | 살 때 | 1,418 |
| 팔 때 | 20.49 | 팔 때 | 1,369 |

| 자동차 I | 배기가스 검사 안내 |
|-------|-----------------|
| 번호판 | 끝자리 검사 기간 |
| 1, 2번 | 04-05월 / 10-11월 |
| 3, 4번 | 03-04월 / 09-10월 |
| 5, 6번 | 01-02월 / 07-08월 |
| 7, 8번 | 02-03월 / 08-09월 |
| 9, 0번 | 05-06월 / 11-12월 |

교육부의 '종일프로그램 폐지'에 법원 제동, "복원하라" 명령

멕시코는 현 정부들어 '개혁' 이라는 이름하에 각종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주요 정책을 놓고 법원과 충돌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특히,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모든 정부 기관들의 가이드 라인이 되면서 무리수를 둔다는 평가를 종종 받는다.

또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집 권 여당이기에 헌법 개정을 빼고 는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어 절 대 권력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곧 법안이 되면서 정부를 뒷받침하 는 입법안을 내놓는다.

한마디로 정부, 여당의 일방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로 야권은 맥없이 지켜볼 수 밖에 없는데 결국 법원을 통한 부족한 힘의 공백을 메우는 식이다.

이번에는 교육 정책에 대해 법원 이 정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멕시코 공교육부(SEP)는 25,000개 이상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 시간을 연장하여 부모, 특히 어머니를 지원하는 '종일 프로그램(PETC)'을 지난 4월에 폐지 했는데 법원이 '복원' 하라는 명령을 내렸기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홀로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오후까지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 후 자녀를 데려가도록 배려한 정부지원으로 자녀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도 계속 남아서 교사들이 이를 대신 돌봐주고 급식도 제공했기 때문에 미혼



모나 이혼모들에게 큰 도움을 주 었던 정책이다. (멕시코는 특히 미 혼모나 이혼녀가 홀로 자녀를 양 육하는 경우가 많다.)

이 프로그램은 칼데론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던 정책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면서 그 재원으로 교실과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학교 인 프라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폐지를 하게 된 것인데 사실,낡은 교실과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사안이라 나무랄 수는 없어 보인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도 그나마 정부의 도움을 받던 자녀들이 하루 아침에 직장을 포기하거나 시간제로 변경하고학교 방과 후 곧바로 자녀들을 집으로 테려와야 하는 부모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판은 거셌다.

결국, 교육에 중점을 둔 비정부 기구인 'Mexicanos Primero'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시 티 행정법원이 이를 복원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

특히, 판사는 "PETC를 폐지할 때 정부가 이전에 자녀를 학교에 더 오래 맡길 수 있었던 워킹맘의 상황을 무시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만약, 종일 프로그램(PETC)을 복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부(SEP)가 시행하고 있는 'La Escuela es Nuestra' 라는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한마디로 이름만 다를뿐, 이전과 똑같이 지원해 주라는 의미다. 정부의 '폐지' 발표 이후 학부모들은 '복원'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 시위에 나섰는데 여기에는 정책을 도입했던 前대통령 칼데론도 "엄마는 아이가 더 배우고, 더잘 먹고, 안전하게 지내는 동안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었다" 현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실제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

업 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 었으며 국가 사회 개발 기관인 Conveval은 2018년 PETC가 멕 시코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프로 그램 중 하나라고 결론지을 정도 로 호평을 받았었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현 정부가 대체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고 있는 'La Escuela es Nuestra (LEEN)'은 학생들이 정규 시간 외에 학교에 머물 수 있고 식사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PETC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복원'명령에 정부는 즉각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4월에 폐지된 '종일 프로그램'을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La Escuela es Nuestra' 에 통합될 것 이라고 밝혀 이름만 바 꾼채 내용은 같다는 점을 강조하 고 나섰다.

이외에도 "2021 학년도에 [PETC에 의해] 다니는 학교의 73%인 약 20,000개의 학교가 실제로는 소외 수준이 높은 지역에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LEEN 프로그램은 현재 27,000개 학교의 360만 학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현 정부는 밝히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또 다시 정부와 법원의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022년 광고료 및 구독료 안내

1. 광고 크기 및 광고료

전면 컬러 (27cm×38cm) \$27,000 전면 흑백 (27cm×38cm) \$15,000 1/2 크기 (23.5cm×16cm) \$8,000 1/3 크기 (23.5cm×16cm) \$5,000 1/6 크기 (23.5cm×16cm) \$3,500

2. 구독료

6개월 \$2,700, 온라인 신문 1년 \$4,000

3. 전단지

A4용지 흑백 1회당 \$600 A4용지 컬러 1회당 \$1,500 지방 포함할 경우 추가 \$500 (전단지 배달만은 하지 않습니다)

4. 참조사항

1. 모든 광고비는 선불 입니다. 2. 광고는 1개월 단위입니다. (1개월 미만도 1개월 계산) 3. Factura 발행시 IVA 별도

4. 고정 광고주는 신문 무료

5. 계좌안내

예 금 주: HANINSINMUN S.A DE C.V 계좌번호: 018 460 4237 Bancomer 계좌이체: 01 2180 0018 4604 2375 문 의: 5522-5026, 5789-296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haninsinmun.com



중국, 멕시코에 공장 대거 건설해 미국 관세 우회

중국이 멕시코에 공장을 대거 건 설해 미국의 대중관세를 우회하 고 있는 것.

중국 업체들은 미국의 대중관세 가 장기화하자 최근 들어 멕시코 와 미국의 국경 인근에 공장을 건 설해 미국의 대중관세를 우회하 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 했다.

멕시코에서 생산한 제품은 멕시 코산이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를 물릴 근거가 없다.

멕시코 수도와 미국 국경 사이에 위치한 '호푸산'은 최근 중국 업체 10여개가 진출해 공장을 운 영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여기 서 생산된 물품을 미국으로 바로 수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푸산은 미국 관세를 회피하려는 중국업체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3년 전만 해도 호푸산에는 건물 이 거의 없었다. 현재 10여 개의 중국보다 멕시코가 조금 더 높지 중국 회사가 그곳에 공장을 갖고 만 최근 중국도 인건비가 급상승 투자는 2016년 1억5400만 달러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있으며, 3개가 더 건설되고 있다 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이들 공장에서 약 1만5000명이 일하고 있으며, 이중 약 10%만 중국인이 라고 덧붙였다.

이곳에 입주해 있는 중국 업체는 유명 전자회사 하이센스,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항저우 XZB. 가구 업체인 쿠카홈 등이다.

재료 및 노동 비용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어 격차가 크게 줄고 있다. 용 급증으로 미국과 가까운 곳에 서 생산을 해 미국으로 곧바로 수 많이 축적했다. 출하면 운송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점이다.

이는 중국보다 약간 높은 멕시코 외 지역에서 상품을 생산해 미국 의 임금과 재료비를 상쇄하고도 으로 수출하고 있다. 남는다.

에서 지난해 2억7100만 달러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멕시코가 미국 관세의 피난처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미국 이 일본의 자동차에 징벌적 관세 를 부과하자 일본 자동차 업체들 이 대규모로 멕시코에 진출했었

중국은 멕시코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세 게다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송비 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은 그동안 제조공장 운영 노하우를

이에 따라 중국은 멕시코 이외에 베트남, 태국에도 공장을 건설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5%의 고 이를 감독할 화이트칼라 노동 자만 파견하는 방법으로 중국 이

중국 기업들이 '상요우정처 사 이에 따라 중국의 대멕시코 직접 요우두이처'라는 중국 속담을



홈페이지: www.fratelliconsultores.mx

Monterrey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금융, 세금, 기업 법률 자문 서비스 및 컨설턴트

당사만의 특별한 고부가가치의 정보제공

- 폭넓은 경험과 경륜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들이 설립한 세무 및 법률 컨설턴트 업체
- 멕시코 정부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는 비지니스 솔루션 제공
- 각 기업체마다 상이한 특정 요구 사항에 최적화된 서비스 정보 제공
- 미국, 멕시코 국경 물류의 핵심 정보와 지역 프로젝트에 최상의 서비스 제공
- 시간엄수 / 빠른 업무처리 / 철저한 비밀보장으로 신뢰 구축

美, 한국은 압박하면서…멕시코에 러브콜 보내는 이유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 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멕시코를 방문해 양국의 대규모 경제협력 계획을 밝혔다.

양국은 멕시코 북부의 리튬 매장 지에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 도 논의했다. 미국은 미국 반도체 기업의 멕시코 내 연구 및 생산시 설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 등을 향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압 박 중인 미국이 국경을 맞댄 접경 국이자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를 향해선 러브콜을 보내는 모양새 다.

미국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 르면 전날 미국은 멕시코와 반도 체, 전기차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경제협력 계획을 발표했 다. 블링컨 장관과 러몬도 장관은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마 르셀로 에브라르드 외무장관, 타 티아나 클루티에르 경제장관과 고위급 경제대화를 열었다.

미국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서 명한 자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Inflation Reduction Act·IRA))'과 '반도체 지원법 (CHIPS Act)'에 멕시코의 협력 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방문도 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은 "반 도체 공급망의 주요 부문이 이미 멕시코에 잘 확립돼있고 인텔, 스 카이웍스 등 미국 기업들이 멕시 코에서도 연구개발, 설계, 조립, 테스트 제조 등을 진행하고 있 다"며 "반도체 지원법은 이런 유형의 작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



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의 발언도 주목됐다. 그는 "멕시코는 반도체 제조 시 설뿐만 아니라 테스트, 포장 및 조 립 분야 등에도 기회를 갖고 있다.

중국과 대만에는 관련 기업 60 여 곳이 있고, 이 분야 산업 규모 는 600억 달러(약 83조 원), 그 중 북미가 차지하는 것은 30억 달러(약 4조 원)"라고 말했다. 이어 " 멕시코와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 의 기회에 대해 매우 흥분된다" 고 덧붙였다. 그는 얼마 전 반도체 등 미래 분야를 '미국이 장악해 야 한다'고 말했던 인물이다.

미국은 한국 등을 향해선 미국에 생산 시설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을 압박하며 한국산 전기차 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 는 등 전방위적 '미래 기술 공급 망 장악'을 추진 중이다. 이런 미 국이 멕시코에 대해선 다소 유화 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멕시코 의 특별한 지위 때문으로 풀이된

미국과 국경을 맞댄 멕시코는 미

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2020년 8 월 기준으로 미국 대외 무역의 14.1%를 차지한다. 미국의 5대 상위 교역국은 멕시코, 캐나다, 중 국, 일본, 독일 순이다.

게다가 멕시코는 전기차 배터리 의 핵심 원료인 리튬이 다량 매장 된 국가다. 아직까지는 상업용 생 산을 안 하고 있지만 5월 멕시코 정부는 리튬을 전면 국유화하며 리튬 산업을 국가가 주도하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멕시코의 리튬 이 본격적으로 채굴되면 전 세계 공급량의 2%를 차지하는 세계 10위의 리튬 생산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RA도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 시코 등 '북미 3국'에서 생산된 전 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는 지리적으로는 북미에 있지만 관례상 보통 '북미'를 칭할 때는 영어권 국가인 캐나다와 미 국만을 지칭해왔다. 멕시코는 스 페인어를 쓴다. 하지만 멕시코의 국내총생산(GDP)는 세계 16위이 고 남미 이민자들이 멕시코 국경

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가는 등 이 민자 문제도 얽혀 있다. 게다가 멕 시코는 산유국이고 미국 에너지 기업들도 상당 수 멕시코에서 사 업을 하고 있다. 때문에 2018년 미국은 '미국 · 멕시코 · 캐나다 협 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 USMCA)' 를 출범 시켰다. 이는 1994년 체 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를 대체하는 무역 협정 이다.

게다가 멕시코는 남미의 일명 ' 리튬 삼각지대(아르헨티나 볼리 비아 칠레)'와 리튬 생산 연합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리튬 삼각지 대 3국은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58%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잠재 력이 큰 곳이다.

현재 세계 최대 리튬 매장국은 칠레, 최대 생산국은 호주다. 멕시 코가 리튬 삼각지대 국가들과 손 을 잡는다면 세계 리튬 공급의 ' 맹주'가될 수도 있다. 때문이 미 국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으로 풀 이된다.

이처럼 멕시코는 여러모로 '미국 의 이익'과 밀접한 국가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는 대우가 다 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멕시코는 멕시코 북부의 미국 접경지역인 '노소라'를 리튬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에너 지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 계획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미국 측에 이 를 설명했다고 밝혔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 코 대통령도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면에 이어..

양파, 리몬 및 기타 조미료로 둘러싸인 포솔레(pozole) 한 그

고대 인류 기반 수프인 pozole 를 준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가 있다. 수년에 걸쳐 이 요리는 빻은 호박씨 페이스트(pepian), pasilla 또는 guajillo chile paste, 갈은 옥수수가 기본인데 옥수수가 재배되는 모든 지역에 고 있다.

지역에 따라 약간씩 변형이 되 기는 했지만, 모든 버전에는 일 반적으로 nixtamal, 잘게 찢은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 마늘과 양파가 반드시 공통적으로 포함 되어 있다. 포졸에 추가되는 재

료는 끝이 없다. 바삭바삭하게 튀긴 돼지고기 껍데기, 얇게 썬 서 이 요리는 발전, 계승되어 오 무, 고수, 리몬 등을 들 수 있는

> pozole와 chiles en nogada 두 요리 모두 애국적인 국가 축제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며 특히, 9월 한 달 동안 멕시코 전역의 가정 이나 식당,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식탁을 장식하고 있을 만큼 국민

적 애국심을 나타내는 주 요리로 자리 잡았다.

의미를 모르고 멕시코 요리 중 한 가지로만 알고 있었다면 이제 부터는 유난히 애국심 강한 나라 멕시코에서 9월 한 달 동안 어디 서든 맛볼 수 있는 대표음식 pozole와 chiles en nogada 한 번 쯤 맛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3색 국기 사랑' 유별난 멕시코서 국기 색 바꿨다 '된서리'



'초록색·흰색·빨간색'으로 이뤄진 국기 색깔을 임의로 여당 상징색으로 바꾼 멕시코의 주 정부가 국민들의 비난 세례에 결국 머리를 숙였다.

멕시코 일간 레포르마와 밀레니오에 따르면 나야리트주는 전날 '차풀테펙 수호 어린 영웅 6명 175 주년 추념일'(9월 13일)을 기리기위해 도심에 있는 후안 에스쿠티아 공원에 색깔을 변형한 멕시코국기를 달았다.

독수리 문장이 있는 가운데 흰색 바탕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초 록색과 빨간색 부분을 체리 색 계 열로 바꾼 것이다.

이 독특한 색깔은 멕시코 여당이 자 나야리트 주지사 소속 정당인 국가재건운동(MORENA · 모레 나)을 상징한다. 소셜미디어를 통 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야리트주에 대한 비 난이 폭주했다. 스포츠 국가대표 팀에 '트리콜로르'(Tricolor · 세 가지 색을 뜻하는 스페인어)라고 따로 별칭을 붙일 정도로 국기 색 깔을 유별나게 사랑하는 국민성 을 방증하듯 비판 수위는 상당히 높았다. '나치 독일 깃발을 연상시 킨다'는 성토도 있었다.

멕시코 의회에서 제정한 문장,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에도 위 배되는 사안으로 논란이 확산되 자 미겔 앙헬 나바로 나야리트 주 지사는 곧바로 이 '변형 국기'를 회수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이날 "국기 색깔이 왜곡된 것에 대해 주 정부를 대표해 용서 를 구한다"며 "실수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하며, 조국의 상징을 존 중하겠다" 며 거듭 사과했다.

국기 장식을 기획한 나야리트주 책임자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또 다른 국가재건운동 소속 에블린 살가 도 주지사가 있는 게레로 주에서 국기 가운데 문장 부분에 있는 뱀 모양을 'S'자 형태로 더 비틀었다 가 뭇매를 맞았다.

주지사 성(Salgado) 첫 글자를 강조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시위대, 거대한 현수막으로 기념비 덮었다

지난 금요일 이른 시간, 멕시 코시티의 우뚝 솟은 기념물 위 에 처벌받지 않고 군사화를 강 화하는 것을 비난하는 거대한 현수막이 펼쳐졌다.

실종자 수색에 전념하는 과 나후아토에 본부를 둔 한 단체 의 여성 회원 2명이 챠풀테펙 공원 입구 바깥에 위치한 104m 높이의 Estela de Luz(빛의 비석) 구조물을 올라간 후 기념물 꼭대기에서 현수막 을 펼쳤다.

Hasta Encontrarte 단체는 거대한 탑에 배너광고를 내건 것은 자신들 이라면서 오전 2 시 30분에 완료됐다고 밝혔 다. 이 단체는 "인간 존엄성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이같은 퍼 포먼스를 펼쳤다"면서 100미 터가 넘는 탑을 오르고 현수막 을 펼치기 위해 밤새 일한 동 료들에게 감사의 뜻을 타나냈 다. 같은 시간대에 로페스 오 브라도르 대통령이 소깔로 광 장에서 "독립의 외침"을 연설 하고 금요일 레포르마에서 열 병식이 열리기 전, '부패의 기 념비' 일컬어지는 대형탑에서 시위를 펼친 것이다.

현수막에는 위 아래로 "16년 간의 군면제"라고 쓰여 있다. '16년 군사면책'은 군대가 멕 시코에서 공안 업무를 수행해



온 기간을 말한다. 펠리페 칼데론 전 대통령은 2006년 12월 취임 직후 악명 높은 카르텔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배치했다.

이후 군인과 해병대는 공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초법적 살 해를 포함한 다양한 인권침해 를 저질렀거나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체포가 있었지 만, 처벌은 멕시코에서 일반적 인 문제로 남아 있다.

칼데론이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 전쟁을 시작한 이후 멕시코에서 실종된 10만명 중 대부분이 생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 전략은 엔리케 페냐 니에토 전 대통령과 로페 스 오브라도르 현 대통령에 의 해 지속되고 있다.

Hasta Encontarte가 주 방위 군에 대한 언급은 유엔과 국제 사면위원회와 같은 인권 단체 들에 의해 비판받고 있는, 군 대 편입을 지적하는 것이다.

스페인어 배우실 분

19년 경력의, 최고의 강사가 여러분의 스페인어 학습을 도와 드립니다

교수: Daniel Ibañez

경력: 관련학과 졸업, UNAM대 Cepe 학습

대상: 어린이 / 청소년 / 성인 모두 가능

스페인어 자격시험(dele) , 학생들 숙제,

회화 등 스페인어 관련 개인 교습

문의: Cel. 5531272866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몬테레이 / 시티

비자문제,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개인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유형의 비자업무 취급

- ◆취업비자 \$10,000
- ◆비자연장 \$5,000
- ◆임시 및 영주권자 신분 변경 \$6,000
- ◆직장, 주소, 결혼 여부 변경 \$4,000 ◆국적변경 \$4.000
- ◆일 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 \$6,000
- ◆고용주 등록 증명서 발급 \$6,000 ◆이민서류 교환 \$4,000

RYF CONSULTING, S.A. de C.V.

주소: Aguilas # 200 A Colonia, Las Golondrinas Apodaca N.L. 전화: Tel(oficina) (81) 83324197, Cel. 8119445318 Lic. 메일: rsalas@ryfconsulting.mx / ysalas@ryfconsulting.mx

'보스들의 보스' 멕시코 마약왕, 복역 33년만 가택연금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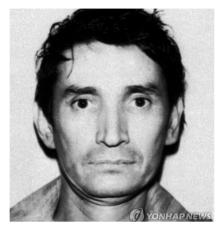
악명 높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마약 카르텔 창시자인 '보스들의 보스'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 (76)가 복역 33년 만에 가택연금 결정을 받았다.

2022년 09월 19일

현지 매체 인포바에와 라호르나 다에 따르면 멕시코 사법당국은 미국 마약단속국(DEA) 요원 엔리 케 카마레나(일명 키키)를 잔혹하 게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로 1989 년 체포돼 복역 중이던 펠릭스 가 야르도에 대해 가택연금을 허락 했다.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팔찌) 부착과 자택 주변 24시간 감시 요원 배치 등을 함께 명령했 다. 시날로아주 경찰 출신인 펠릭 스 가야르도는 1980년 멕시코 최 대 갱단이었던 과달라하라 카르 텔을 조직했다.

에르네스토 폰세카 카리요(돈 네 토), 라파엘 카로 킨테로 등과 함 께 멕시코 여러 지역에 난립해 있 던 카르텔들을 연대하는 데 성공



해 '보스들의 보스'라고 불리기도 했다.

콜롬비아 카르텔과도 협력하며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유통망을 완전히 장악했는데, 멕시코 당국 의 마리화나 단속에 화난 킨테로 가 1985년 미국 마약단속 요원을 잔인하게 살해하면서 펠릭스 가 야르도 역시 미국과 멕시코의 표 적이 됐다.

몇 년 간 도주 생활을 이어오던 펠릭스 가야르도는 1989년 체포 됐고, 40년 형을 받고 알티플라노 교도소와 푸엔테 그란데 교도소 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펠릭스 가야르도의 과달라하라 해 과정은 넷플릭스 시리즈 '나르 다"고 말했다. 코스 멕시코'로도 제작됐다.

는 120세가 된다.

펠릭스 가야르도는 그러나 교도 소에서 한쪽 시력과 청력을 잃거 혐의로 역시 40년 형을 받았던 카 나 탈장수술을 받았고, 최근에는 산소탱크 의존 치료를 받는 등 건 강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갱단 충돌 지역에서 몸 수색 하 는 멕시코 군 · 경

갱단 충돌 지역에서 몸 수색 하 는 멕시코 군 · 경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 매 및 DB 금지]

견에서 법원의 펠릭스 가야르도 만인 지난 7월 붙잡혔다.

가택 연금 결정을 존중한다며 "감 옥에서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상태 카르텔 결성과 마약단속 요원 살 가 좋지 않다고 보고 받은 바 있

다만, 펠릭스 가야르도의 가택연 그는 이후 무기 밀매·불법 비축 급이 곧바로 개시될 수 있을지 여 등 죄로 징역 37년을 추가로 선고 부는 미정이다. 검찰에서 법원 결 받았다. 이 형기를 다 채우면 나이 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고 절차 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한편, 펠릭스 가야르도와 같은 리요는 31년간 복역한 뒤 2016년 가택연금을 받고 출소해 집에서 남은 형기(올해 기준 3년)를 살고 있다.

킨테로 역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가 2013년 법원의 형집행 정지 처분에 따라 28년 만에 석방 됐다.

이후 다시 석방 결정이 뒤집혀 복역 대상이 되자 종적을 감췄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 미국의 2천만 달러 현상금 수배를 도르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 피해 도주 생활을 이어오다 9년

멕시코 국제관광 수익 2021년 대비 64.6% 증가



미겔 토루코(Miguel Torruco) 관광부 장관은 1월부터 7월까지 멕시코에서 해외 관광객과 국내 방문객이 거의 165억 달러를 지 출했는데,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에 비해 거의 65% 증가한 수치라 고 밝혔다. 통계청 INEGI의 자료 에 따르면 3680만 명이 넘는 관 광객과 방문객들(예를 들어, 당일 치기 여행객과 유람선 승객)이 올 해 첫 7개월 동안 164억 8천만 달 러를 멕시코 관광지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사실을 뒷

받침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4.6%, 코로나바이러스 대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도 8.3% 높은 수치다. 지난 한 달간 기준으 로 본다면 외국인의 지출은 총 26 억7,000만 달러로 2021년 7월 대 비 21% 증가했다.

올해 1~7월 멕시코에 온 외국인 관광객수는 2170만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5.5% 증가했 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 해 17.3% 적은 수치다.

이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부 장관은 "멕시코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관광 수입이 크 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 냈다. 한편, 독립기념일을 포함한 3일간 연휴에는 200만 명 이상의 멕시코인들이 국내 여행을 하면 서 관광업이 거의 정상화 수준까 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포르마에서 열린 독립 기념일 군사 퍼레이드

독립 기념일을 맞은 지난 금 요일, 멕시코시티 레포르마에 서는 성대한 軍퍼레이드 행사 가 열려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코로나 이전에 매년 해오던 행사는 3년만에 다시 열려 모 처럼 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정 부 행사를 지켜보게 됐다.

군사 퍼레이드는 시티의 중앙 광장인 소칼로(zocalo)에서 시 작되었으며 육군과 해군, 해병 대, 공군, 경찰, 그외 군 지원병 력까지 참여하여 레포르마를 행진했는데 동원된 군인은 약 7,000여 명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100대 이상의 군용 항공기도 상공에서 삼색기를 상징하는 연기를 내뿜으려 기 념일을 축하 비행했다.

軍 퍼레이드는 Lazaro Cardenas가 대통령이었던 1935년부터 매년 개최되었는



데 멕시코 독립 전쟁 발발 212 주년을 기념하는 올해에는 상 원이 국방부가 주 방위군을 행 정 및 작전 통제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 킨 지 일주일 만에 치러지는 대규모 행사다.

한편,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 통령은 독립기념일 전야제인 목요일 밤 소깔로 국립궁에서 멕시코의 장수를 기원하는 독 립의 함성 인 '엘 그리토 (El Grito)' 를 외치면서 멕시코 독 립의 의미를 되새겼다.

aT, 멕시코에서 K-FOOD 알리기 앞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케이-푸드(K-Food) 수출 시장 다변화와 중남미 시장 공략 하고자 멕시코시티 번화가에서 'K-Food 소비자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대표 발효식 품인 고추장, 된장 등 장류와 김치 의 현지인 시장 진입을 위해 한식 에 조예가 깊은 멕시코 셰프와 주 말에 인파가 몰리는 지역 명소 과 달루페 성당 인근 식당에서 한국 의 야외 포장마차를 테마로 행사 를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한식을 테마로 김치 볶음밥, 고추장 제육볶음, 된장국, 칠라킬레스(튀긴 토르티야에 소 스를 부어 먹는 멕시코 가정식)



등 고추장 · 된장 · 김치를 접목시 킨 퓨전 요리를 선보여 뜨거운 호 응을 이끌었다. 또한 유자청과 녹 차 티백을 활용한 후식 아이스티 도 제공해 K-Food의 다양한 매 력을 알렀다.

한편 aT는 대대적인 행사 홍보 를 위해 멕시코 나야리트 주립대 방송팀과 협력해 K-Food 특집

라디오 방송을 진행했다.

장, 김치를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전파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K-Food의 매력을 현지인들에게 알렀다.

행사 메인 셰프인 훌리안 씨는 "최근 한류 열풍으로 한국 음식 을 찾는 현지인들이 부쩍 늘었 다"며 "특히 새로 선보인 한 국-멕시코 퓨전 요리의 반응이 뜨거워 현재 운영 중인 레스토랑 에서 시범적으로 판매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기노선 aT 수출식품이사는 "멕 시코는 인구 1억3000만 명의 중 남미 경제 대국으로 살사 등 매운 맛을 즐겨 먹는 식문화가 있어 고 또한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를 초 추장을 비롯한 K-Food 수출 확 청해 행사 현장은 물론 고추장, 된 대가 유망하다"며 "올해는 한 국 · 멕시코 수교 60주년인 만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K-Food 수출 활성화를 통해 양 국 간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 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 다.

멕시코 대통령 이어 시장까지 "위키리크스 설립자 지지"



간첩법 위반죄 등으로 미국에서 처벌될 위기에 놓인 '위키리크스' 창업자 줄리언 어산지에 대해 멕 시코 대통령에 이어 유력 시장까 지 지지와 연대 표명을 하고 나섰 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시 티 시장은 14일(현지시간) 시청 청사에서 어산지 가족에게 '귀빈' 선물인 멕시코시티 상징 열쇠를 전달했다.

셰인바움 시장은 "우리 도시는 표현의 자유를 항상 옹호한다"며 "어산지가 대표하는 진실의 가치 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박해받아 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5~16일 열리는 독립기념 행사

에 초청받아 멕시코를 방문 중인 어산지의 부친 존 시프턴은 지지 의 뜻에 감사를 전하며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어주는 것 같은 (따뜻한) 환대에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화답했다.

멕시코에서 '어산지에 대한 연 대'움직임을 보인 건 대통령궁이 먼저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 도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영국에 수감 중인 어산지에게 정치적 망 명을 제안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 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사면을 촉 구하기도 했다.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7월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어산 지 구명 취지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은 올해 초 정례 기자회견에서 " 망명 권리는 멕시코 외교 고리의 한 축"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 멕시코는 정치적 망명지로 서의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볼 리비아 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멕시코 '울트라 철인 3종경기' 송형진 선수 우승

9월 9-11일 멕시코에서 열 린 '울트라355(ULTRA355) 철인 3종경기'에 대한민국 대 표로 출전한 송형진 선수(29, 호주 유학생)가 우승을 차지했 다.

2022 ULTRA355 경기는 하 루 8시간동안 300km 자전거 주행, 50km 달리기, 5km 수영 으로 이루어진 전문가들의 경 기이다. 송 선수는 한반도 국기 를 가슴에 달고 경기를 완주했 다. 바다 수영 종목에서 5시간 27분 45초의 기록으로 3위를 차지했고 사이클에서는 6시간 17분 32초의 기록으로 2위로 골인했다. 달리기에서 4시간 8 분 46초의 기록을 세우며 총 15시간 54분 03초의 기록으로 우승의 주인공이 됐다.

현재 퀸즐랜드 브리즈번에 있 는 스펜서칼리지에서 경영학



을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인 송 씨. 그는 이미 올해 퀸즐랜드에 서 열린 호주울트라맨대회에 한국인 중 최초로 출전해 12위 의 성적을 거두었다.

우승 후 그는 "한국과 호주 를 대표해서 나가서 너무 기쁘 고, 한반도 국기를 가슴에 달고 완주하여 대한민국 통일에 관 련하여 간접적으로 언급할수 있어서 감사했다. 시차 적응, 음식, 더운 날씨 그리고 혼자서 30시간의 긴 비행은 정말 힘든 싸움이었다"라고 말했다.

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 등이 개한 후 미 당국으로부터 기소됐 렀다. 호주 출신인 어산지는 지난 2010년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 쿠바 독립운동가 호세 마르티, 러 를 통해 미국 정부 기밀문서를 공

자국 박해를 피해 멕시코에 머물 다. 주영국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7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2019년 체포돼, 영국에서 미국 송환과 관 련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용 멕시코에 투자하나,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기지로 부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추석 연휴 기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 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 삼성전자의 멕시코 현지 사 업 현황을 설명하고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멕시코는 미국과 손잡고 반도체,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협 력을 진행하고 있어 삼성전자 반 도체사업의 투자처로도 부각되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는 반도체 최대 수요국 가 운데 하나인 미국과 인접해 있으 면서도 인건비와 물가가 훨씬 저 렴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에 게는 매력적인 생산거점이 될 수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멕시코가 최근 반도체공장 유치에 힘을 쏟 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과 오브라 도르 멕시코 대통령의 만남에서 반도체 사업과 관련한 논의도 있 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멕시코 정부는 올해 8월 정부 주 도의 콘퍼런스를 열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 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 다고 밝혔다. 특히 공장 유치를 위 해 멕시코가 미국의 중요한 협력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멕시코와 경 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지나 러 도 멕시코시티에서 마르셀로 에 브라르드 멕시코 외무장관, 타티 아나 클루티에르 경제장관과 2차 고위급 경제대화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 멕시코가 동참하기를 요 청했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번 협력 으로 미국과 멕시코에서 고용창



출 기회가 생겨 매우 흥분된다" 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에 인 접국가인 멕시코도 포함해 아시 아에 쏠린 반도체 제조 설비를 북 중미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드러 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멕시코는 매력적인 반도체 생산기지가 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1998년부터 미국 오 스틴시에서 파운드리(반도체 위 탁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170억 달러(약 21조 원)를 투자해 테일러시에 약 500만m²(150만평) 규모의 공장도 짓는다. 테일러 공 장은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원천기술의 대부 분을 보유하고 있고 반도체 설계. 장비 등의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토니 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삼성 전자의 미국 투자는 앞으로도 확 몬도 상무장관은 12일 멕시코 수 대될 수밖에 없다. 다만 미국은 높 은 물가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투자 부담이 크다.

> 모리스 창(장중머우) TSMC 창 업주는 올해 4월 미국의 한 씽크 탱크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 드 도체 위탁생산을 위한 인력 풀을 것으로 여겨진다.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고 이들을 교육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 다"고 말하며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말하 기도 했다.

반면 멕시코는 미국과 같은 북 중미 경제권으로 묶이면서도 인 건비와 토지가격 등이 훨씬 낮다 는 장점이 있다.

멕시코 제조업투자 유치협회 (IVEMSA)의 조사에 따르면 멕시 코는 중국보다도 노동비용이 30%, 임대료가 50% 저렴하다.

게다가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올 해 8월에 통과된 미국 반도체 지 원법을 멕시코에도 적용하는 방 안을 협의하고 있다. 반도체 지원 법은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약 68조 원)를 지원하고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 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

삼성전자 등 외국기업 입장에서 는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면 더 적 은 비용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셈이다.

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멕시 코 방문도 단순히 부산엑스포 지 지를 요청하기 위한 행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분석이 나 온다.

반도체 후공정 시설이 멕시코에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중국과 대 만에서 반도체 테스팅부터 패키 징, 어셈블리(조립)까지 산업 규모 는 6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북 미 반도체산업은 30억 달러에 불 과하다"며 "미국과 협력을 통 해 멕시코는 반도체 제조공장 뿐 아니라 '테스팅와 패키징, 어셈 블리(후공정)'까지 확보하는 기 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는 IP기업(설 계자산)□팹리스(설계)□파운드 리(생산)의 전공정을 통해 만들어 진 뒤 후공정(패키징□테스트)를 통해 최종 완성된다. 그동안 후공 정은 반도체 제품을 출하하기 위 한 포장 작업 정도로만 여겨졌지 만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오스틴 공장에서 반도체를 생산 해 멕시코 공장에서 후공정 작업 을 거친 뒤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 하는 공급 라인 구축도 검토해볼 수 있다. 경쟁사인 인텔은 멕시코 와 바로 인접한 미국 뉴멕시코주 에 후공정 설비를 짓고 있다.

다만 멕시코 정부의 정책이 투자 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 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멕시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가 반도체 공급자로서 기회를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멕시코 정부가 전력 가격 삼성전자는 이미 멕시코에 가전 을 안정시키고 투자자들(반도체 공장 등을 운영하며 현지 경영 노 기업)이 법치주의에 대해 안심할 는 비용은 대만보다 약 50% 높은 하우를 쌓아온 만큼 반도체 공장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개선할 수준일 것"이라며 "미국은 반 설립도 검토해볼 여지가 충분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보 도했다.

9

씨티은행, 멕스코서도 떠난다

씨티은행이 멕시코 소매금융 사 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당초 멕 시코 시장은 씨티은행의 소매금 융 철수 국가 명단에 빠져 있었지 만, 정부 규제 강화와 운영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이번 결정을 내 린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 마크 메이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열린 투자자 컨퍼런스에 참 석해 "내년쯤 매각이나 기업공 개(IPO) 같은 방식을 통해 멕시코 소매금융 사업에서 철수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수 기업으로는 그루 포 피난시에로 인부르사(Grupo



Financiero Inbursa)가 거론된다. 인부르사는 멕시코 현지에서 보 험업과 은행업을 하고 있는 금융 대기업 중 하나다. 씨티은행은 인 부르사 외에 다른 인수 기업도 물 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씨티은행은 작년 4월 아시

아와 태평양 지역 13개국에 대한 소매금융 사업 철수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멕시 코와 미국, 영국 등 6개 국가에선 소매금융 사업을 유지할 계획이 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멕시코 정 부가 은행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면서 씨티은행도 은행 지점과 사업부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도 소매금융을 접 게 된 이유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8월에는 러시아 소매금융 사업을 종료하기도 했다. 씨티은 행은 1년 전부터 러시아 소매금융 인수 기업을 물색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수 기업을 찾기 힘들어지면서 사업 종료를 최종 결정했다.

씨티은행은 잇딴 소매금융 사업 철수를 계기로 전략적 사업 모델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 다. 소매금융을 배제하는 대신 기 관 및 자산 관리 사업에만 보다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지난 몇 달 간 멕시코 소매금융 사업을 매각 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 왔다"면서 "현재의 복잡한 환 경을 고려하면 단계적 폐쇄도 한 가지 가능성이 될 수 있다"고 말 했다.

"철도 관통한다는데" …멕시코 수중동굴서 선사시대 유골 발견



멕시코 수중동굴에서 최소 8000 년 전 선사시대 인간 유골이 발견 됐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고고학자 옥타비오 델리오는 이 날 카리브해 연안도시 툴룸 인근 수중동굴에서 선사시대 유골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떨어진 수심 약 8m 바닥에 묻힌 상태다. 델리오는 "발견 장소는 잠수 장비 없이 도달할 수 없는 곳이다. 유골은 해수면 상승 전인 최소 8000년 전 동굴에 살았던 사람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은 빙하 기가 끝나던 시기로 해수면이 높 아져 바다 속으로 잠기는 땅이 크 게 증가했다. 델리오는 "아직 유 골 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이곳이 무덤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사망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물론 성별 과 키, 몸무게 등도 아직 모른다" 고 말했다.

현재 델리오는 고대동굴의 정확 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동 굴이 약탈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 이다. 그는 AP 통신에 "멕시코 정부가 마야 철도를 놓고자 공사 를 강행한 밀림 근처"라고 밝혔 다. 이후 개인 페이스북에서는 유 골은 툴룸 지역에 있으며 이 일대 에서는 11번째 선사시대 유골 발 견이라고 밝혔다.

고고학자들은 고대 마야 문명 유 적이 대거 발견된 동굴 수백 개가 마야 철도와 같은 국가 개발 프로 유골은 동굴 입구에서 약 500m 젝트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한다. 실제 멕시코 정부는 지 난 2월 철도의 일부 노선이 아메 리카 대륙에서 2번째로 큰 밀림지 대를 관통하도록 계획을 수정했 다. 지난 30년간 동굴 유적 탐사 에 참여해온 델리오는 철도 공사 가 예정대로 강행되면 고고학적 가치가 큰 유적지들이 크게 회손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 리는 마야 철도가 고대 유적지를 피해 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 다.

멕시코 정부, 뇌물로 취득한 가르시아 루나 前 보안장관 자산 회수에 전력투구

멕시코 연방 정부는 Sinaloa Cartel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前연방 보안장관 Genaro Garcia Luna가 소유한 미국 내 자산을 회수하려고 더욱 고 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펠리페 칼데론 전 대통령 집 권시절인 2006-12년 보안 장 관을 역임했던 가르시아는 2019년 텍사스 댈러스에서 수 백만 달러의 대가를 받고 시날 로아 카르텔에 도움을 준 혐의 로 체포되어 현재 뉴욕 감옥에 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방 재무부(SHCP)의 소속 으로 멕시코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2020년 Garcia Luna가 미국에서 취득한 것으 로 추정되는 2억5천만 달러 상 당의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민 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같은 멕시코 정부의 자산회 수 방침에 전 보안 장관의 변 호사들이 적극 방어하면서 대 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현재, SHCP(멕시코 재 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 두 개 의 공식 서한을 플로리다 11차 순회 법원에 제출했는데 미국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 려졌다. 미국 법원은 멕시코 재



무부를 대표한 변호인단의 의 도적으로 숨기고 있어 멕시코 당국의 직접적인 손이 닿지 않 는 자산을 회수하는데 정부의 법적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알 려져 유리한 입장에 있다.

Garcia Luna는 멕시코에서 도 돈세탁, 조직범죄, 마약밀매 와 부패를 통한 불법적 이득에 대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멕시코 정부의 자산회 수방침에 대해 전 보안 장관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검찰은 그가 시날로아 카르텔 로부터 수천만 달러를 받은 것 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범죄 카르텔에 정부 보 안 작전 등 세부 정보를 제공 하고 뇌물을 챙긴, 부패한 정치 인 중 대표적인 인물로 비난받 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자 신의 재산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대 원유매장' 베네수엘라 "안정적 원유 공급 준비" 호언

원유 확인매장량 세계 1위인 베 네수엘라가 세계 연료 시장 수급 이 불균형한 상황을 틈타 원유와 가스 수출량을 늘리겠다고 밝혔 다.

그러나 고질적인 원유 저품질 문 제와 정유시설 유지보수 불량 등 을 어느 정도 극복했는지는 미지 수여서 실제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

EFE통신과 멕시코 경제 전문지 엘에코노미스타 보도를 종합하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 통령은 전날 수도 카라카스를 찾 은 하이탐 알가이스 석유수출국 기구(OPEC) 사무총장과 만나 " 베네수엘라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연료를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 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 스'(OPEC+)와 공조를 강조하며



"주춤했던 석유 산업 동력을 실질 적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주장했 다. 특히 서방이 러시아산 에너지 에 대해 가격 상한제, 수입 중단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것과 관 련,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조처가 최근 몇 달간 세계를 비이성적으 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현재 베 네수엘라 하루 원유 생산량은 약 70만 배럴로, 2002년 320만 배럴 의 2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아졌지만, 상승 곡선을 획기적으 로 끌어올릴 만한 상황은 아니라 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황 성분이 많아 찐득찐득 한 특성이 있는 베네수엘라 원유

는 고급 정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데다 중동 또는 미국 원유보다 유 지 비용도 더 들어간다.

2019년 미국이 마두로 정권 축 출을 위해 시행한 베네수엘라 원 유 거래 제한도 걸림돌이다. 조 바 이든 행정부가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베네수엘 라의 대중국 원유 수출을 줄여 마 두로 정권에 상징적인 성과를 안 기려는 목적으로 일부 제재를 완 화하긴 했으나 여전히 수출량은 크게 늘지는 않았다.

올해 2월 주베네수엘라 한국대 지난해 연평균 일일 생산량(55 사관은 주재국 경제 동향 보고서 만4천 배럴)보다는 올해 조금 많 에서 "원유 품질 문제와 정유 시 설 유지 보수 불량 등 사유로 1월 석유 수출량이 전월 대비 34% 감 소했다"며 경제 제재가 이어지면 석유 산업이 지속적인 회복세를 유지할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고공행진 하는 아르헨티나 물가…1년 전보다 78.5% 올라

아르헨티나의 물가상승률이 매 월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고공행 진을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청(INDEC) 은 8월 소비자물가지수(IPC)가 1 년 전보다 78.5% 상승했다고 발 표했다. 이는 30년 전 1992년 1 월(76%) 기록을 넘어서는 수치 로, 올해 들어 8개월간 56.4% 상 승률을 기록했다.

의류 및 신발(9.9%), 각종 서비 스(8.7%), 주거시설유지보수비 (8.4%), 식품 및 음료(7.1%) 등의 상승 폭이 물가지수 상승을 견인 하면서 8월 한 달동안 물가가 7% 올랐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전문 애 널리스트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시장기대조사(REM)에 따르면 연 말 물가상승률은 94.5%로 전망 됐다. 일각에선 연말에 최고 세 자 릿수 물가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 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8월 물가상승률은 7%로 여전히 높으나 20년 만에 월 단위 최고치 를 기록한 지난 7월(7.4%)에 비 해서 오름세는 다소 둔화했다. 이 에 대해 경제 전문 온라인 매체 이프로페시오날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경제 위기가 이어지면서 아르헨 티나는 최근 경제장관을 두 번 교 체하였으며, 8월 초 전 하원의장 세르히오 마사가 경제장관으로 부임한 후, 시장의 불안감이 해소 되면서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 에너지 보 조금 삭감 등 각종 긴축 정책으로 인한 요금 인상이 9월에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연말까지 4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월 최소 5.5% 의 물가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물가상승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기준금리 69.5%를 최소 5% 포인트 정도 추가 인상해야 한다 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은 15일 이사회를 소집한 후 9번 째 추가금리 인상을 이행할 것이 라고 인포바에가 전했다.

자는 "연말 물가상승률 예측은 료가 올라올 때마다 100%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이는 이미 아 르헨티나가 높은 인플레이션 체 제에 속해있으며, 지난 7월 초 마 르틴 구스만 경제장관의 돌발 사 임으로 발생한 불확실성 속에서 가격의 재평가(Repricing) 현상이 8월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지 적했다. 가파른 물가상승률로 인 해 생활고가 심해진 시민들의 시 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2일 수도인 부에노스아 이레스에선 급여가 살인적인 물 가를 따라가지 못해서 사망했다 는 '급여의 사망'을 애도하는 모의 장례 시위까지 일어났다.

아베야네다 지역에서 의류도매 업에 종사하는 김모 씨는 "경제위 기라고 해도 지난 6월까지 경기가 엘리사베스 바시갈루포 경제학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7월 초 구스만 경제장관 사임으로 인한 95%에서 100% 사이이지만, 자 급격한 비공식 달러 환율 급등 이 후, 시장에 돈이 전혀 돌지 않는 다"며 "늦어도 9월부터는 봄·여 름시즌이 시작돼 바빠야 하는데 손님이 전혀 없다"며 한숨을 쉬었

> 한인 교민들 대다수가 종사하는 의류업은 지난 1년 물가상승률이 100%를 상회해 가장 많이 오르 고 반대로 판매는 지난 8개월간 15.9%나 하락한 분야라서 한인 교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022년 09월 19일 11

2023년형 달력 주문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인신문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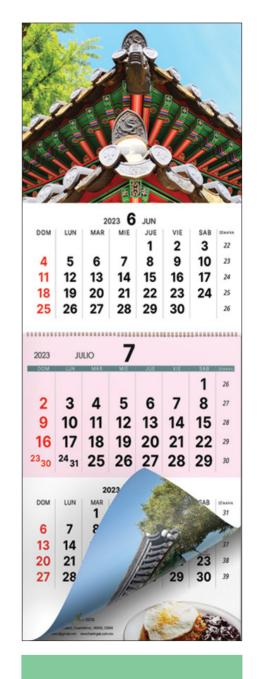
www.haninsinmun.com

A형 (3단 달력): 1매 12장

싸 이 즈: 86cmX34.5cm 금 액: \$175 (상호 인쇄 포함) 최소 주문수량: 100매







B형 (탁상용 달력) 싸이즈: 18cmX14.7cm 금액: \$80 (상호인쇄포함) 최소 주문수량: 100매 C형 (1장짜리 달력) 싸이즈: 66cmX46cm 금액: \$40 (상호인쇄포함) 최소 주문수량: 100매

주문시 선금 70%, 납품시 30% (별도 디자인 불가) 문의: 55-6709-4554

숯불구이 전문점

LA CASA COREANA

한려수도가 '숯불구이 전문점' 으로 변신합니다

내부 시설 공사 중, 10월 초 마무리 예정



석넉한 실내 공간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손님 접대에 안성마춤, 각종 모임 환영! 귀한 손님을 위한 귀한 장소로 명성을 이어 갑니다!

각종 모임 예약받습니다!

- ▶ 단체 40석 ▶단체 20석 ▶ 오붓한 가족모임 6석
- ▶ 귀한 손님을 위한 VIP 12석

예약 문의

T. 5514-8683, Cel. 55-1801-2313

Av.Chapultepec No.425 Col. Juarez (하림각 맞은편) 매주 월요일은 휴무

대한불교 조개종

1년 연중 연등집수中

멕시코 만음시



멕시코 관음사가 조용하고 안전한 곳으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을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낑기법회(주지 여신스님) 매주 첫째,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문의

관음사: 01-597-976-8747 휴대폰: 55-2716-0152

55-3983-6135

불교도는 물론 타종교인 및 무종교인의 탬플스테이 가능합니다. (동참금은자율보시) 전화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주소: Montepio 38 Salto del Aqua 20 Mexico Viejo Popo Park C.P. 56983 Atlautla de Victoria Estado de Mexico





곽주영 치과

Dra. Kwak Clínica Dental

코로나19 대응 대책에 따른 곽주영치과 진료 안내

☑ 본원은 고로나19감염 방지와 안전한 병원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내원하시는 고객님과 모든 직원이 마스크 착용과 <u>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u>하고, 의사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합니다.

🇹 환자분을 모시기 전에 진료 체어, 타구대 등을 <u>알코올과</u>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u>환자분을 모시게 되어</u> 진료대기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AV. HOMERO #527, 101호 (SAN PABLO 약국옆) ⊙ 진료 시간 월-금: 9am-12pm / 2pm-7pm (그 외 시간은 사전예약 바랍니다) 6838-7740, (55)1382-1929

[조우현 변호사]



CHO & ASOCIADOS 법무•회계법인 www.choasociados.com

■ 멕시코 한인 1세 1호 변호사 (2005 년) Cédula P. 4535342

■ 멕시코 연방사법부(PJF) 인가 한국어-스페인어 통·번역사 P.0306-2020

■ 국제통상법, 지적재산권법, 세법 전문과정 법학대학원 졸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NUAC) 자문위원 (13,14,15,16,19 현재)

■ 법률서비스 ■ 세무관리서비스 ■ 법원통역 및 번역공증 서비스(한국어-스페인어) ❖각 분야 전문변호사 보유

법인,지사,연락사무소 설립 및 -회계기장 및 세금신고, 청산,비자업무,노무관리,계약서 검토 및 작성, 정관관련 회사법 |재무 및 세무감사... 저작 권,상표권 및 특허출원, 중재 및 조정,형사고소, 각종 감사전문 세무회계사 보유

세금환급, 종합세무컨설팅, ❖국세청 SAT 인가 세무

법원통역 -각종 공문서 번역공증 예:출생,혼인,가족관계,졸업,성적증 명서,회사정관,법원판결문 및 각종 공문서...

■ 멕시코시티 본사 ■ 몬테레이 지사

Varsovia 53 Oficina 401, Juárez, 06600, México. (52) 55-5208-

민사,채권,노무,행정,세무소송

Carretera Miguel Alemán Apodaca, N.L. 66633, México. (52) 81-8345-0060

이메일: cho@choasociados.com 휴대폰: (52-1) 55-2109-5747 카카오톡 ID: ssdaddy77

□ 연락처

"값도 싸고 맛도 좋다더라"





150명 수용 대형 연회석 32가지 음식 & 후식까지

친절한 서비스 각종 연회 환영(예약)

1인당 175페소 (3-8세 어린이 119페소) 디저트 포함)

Calle. Londres No. 169 (Londres y Florencia esq.) Tel. 55-5208-5725

본점 Torres Adalid No.15 Col. Del Valle 인수르헨떼스 Poliforum 옆



이 메시코 한인병원 **사울 클리닉** 멕시코 한인병원

Grupo HAMECO S.A. de C.V.

원장 Dr. 문장호 (의학박사/전문의: CEDULA No. 4155018) 내과 / 외과, 소아과 / 안부인과, 피부비뇨, 미용성영, 안방과

진료 시간

평 일9:30 am ~ 7:00 pm 도요일 9 : 30 am ^ ※ 산부인과, 한방과 예약요망

상근 진료 의사

Dr. 문장호 (소화기내과/피부비뇨기과) Dr. Juan M. Avalos (일반내과/가정의학과) Dra. Doris C. Jimenez (산부인과, 여의사)



외부협진 전문의

심장내과 Dr. J. Cesar Ayllon(Hosp. Espanol) 일반외과 Dr. B. Jimenez Bodadilla(Hosp. Santa

성형외과 Dr. J.L. Perez Avalo(Hosp. Obregon) 한방과 Dra. Jin Xuan (중의, 중국 정통침)

TEL. / FAX. (55)5208-5448 CEL. 55-1513-7716

※ 산부인과, 한방과 예약요망 공유일은 전화 예약 바랍니다

일반진료, 건강상담, 수술상담, 응급처치, 예방접종, CO2 레이져, 점/검버섯제거, 자궁암검진 미용성형/비뇨기수술, 영양제주사, 위내시경, 임상병리, 학교진단서, 예방접종 번역, 각종 서류

Londres #227, Zona Rosa (Varsovia Y Praga)

최고의 한국 치과 의료술로 진료합니다.

최신 기술과 고급 치과 재료를 선택하 여 좀 더 나은 치료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남 나비치 과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한국외국어 대학교 스페인어과 졸업 댄티움 치주 임플란트 과정 수료
- 멕시코 국립 미술 학교 I.N.B.A "La esmeralda" 수료
-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 U.N.A.M 대 치과 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치과 보존학 Mini Residency 수료
- 함병도 원장님의 I.P.I 치주 임플란트 과정 수료
- 강서구 최용현 STM 교정 치과 연구회 과정 수료
- 강남 최재영 얼굴 턱 미용 치과 연구회 정회원
- 최병건 한국 치과 치의학 임상연구회 정회원

진료시간 : 월,화,수 am 10:30 ~ pm 8:00 / 목,금,토 am 10:30 ~ pm 6:00

전화: 55)-5207-0026, Cel. 55-4882-2676 Copenhague 24, Juarez, Cuauhtemoc, 06600 Ciudad de Mexico, CDMX Zona Rosa

정통 침 타이완한의원

Clinica Acupuntura y Herbolaria DR.Chu

- ☞ 한약 다이어트 (14일분) \$1,000페소(4킬로 빠짐)
- ☞코로나 바이러스19, 페렴을 위한 한약
 - ★한약 14일분 \$1,500페소 ★7일분 \$800페소

진료과목: ▷편두통, 스트레스, 신경통, 불면증, 주의력 결핍, 위장염, 대장염,위 역류성, 변비, 설사, 안면마비, 틱, 신경통, 감기, 천식, 정맥염, 기관지염, 마른기침,비강건조,루마티스, 관절염, 폐경기, 생리불순, 당뇨, 갑상선 기능저하, 성장통, 정맥류, 발부종=> 한약 14일분 \$1,000 페소 ☞한약은 진맥 후 제조 해드립니다.

침 진료: ▷두통 ,편두통,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 팔꿈치, 손목, 손가락, 관 절, 복통, 발바닥, 근막염, 좌골신경통, 안면마비, 신경통, 정맥두염, 섬유근통

주소: Articulo 123 Ext. 97 int. 103 Col. Centro a lado del Metro Juarez. CDMX Consultorio 55 2345 3199 Whatsapp 55-1425-4378 (Sra. Lan)

코리아타운 스

신선하고 우수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님들께 제공하는 프리미엄 종합 식품점, 코리아타운 식품점입니다!

- ♦ 가장 편리한 교통
- ◆ 가장 저렴한 가격
- ◆ 모든 것을 갖춘 종합 식품점



종로떡집

코리아타운 식품점이 종로떡집 으로 떡을 다시 시작합니다. 각종 떡 주문 및 판매합니다.

백일, 첫돌, 생일, 환갑, 고희, 폐백, 이바지, 개업떡

Hamburgo No. 238, Zona Rosa Tel 55-5514-6062, 55-5533-4686



※ 퓨전 한정식 (2인 이상 가능)

*백합상(1인 \$300) 〈14가지 식단〉

보쌈+불고기+월남쌈+잡채+야채샐러드 +전+흑미밥+삼치조림+된장찌개+김치 +떡갈비+연어회+새우튀김+과일

한식 & 숯불구이 전문점

*편백상(1인 \$400) 〈17가지 식단〉

백합상+구절판+갈비찜 +베이컨아스파라거스구이

* 3시간 전 예약 필수! * 계모임, 각종 기념일, 손님접대에 안성맞춤

※ 특별 보양식 메뉴! 염소전골 대\$800 소\$600 한방오리백숙 \$800 삼계탕 \$300

수라상은 음식을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Tel. (55)5511-7929 Cel. 55-4027-7137

Calle Varsovia No.13 Zona Rosa

※모든 메뉴 주문 포장 가 ※ FACTURA 발행 신용카드 결제 가능



코레아나 여행사 www.asiamextour.net

언제나 최고의 여행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EL: 55- 5208-1122/3



한국 직항노선

저가 판매

KORFAN AIR ASIANA AIRLINES

항공권 발권 여행 패키지 저가 요금, 남미 여행 편리하고 빠른 여정! 항공권, 호텔 등 국내 외 출장티켓 유럽, 북미 여행, 한국 휴가티켓 성지순례(유럽), 아에로멕시코 북경, 하노이,

앙코르와트 여행 등 (하나투어 대리

차량/호텔 등

AEROMEXICO

VIP 의전 및 각종 행사 지원 차량(기사 포함) 대여, 호텔 예약 등 ★멕관광부(SECTUR)

등록 여행사

E. asiamex88@hotmail.com

T. 55-5208-1122/23, 8586, 8706 M. 55-5431-9292 또는 55-4095-

Mex74, 1205oh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일품 중화요리를

맛볼 수 있는 멕시코 최고의 中食堂

짜장면...\$150 짬뽕.....\$180

군만투....\$180 탕수육....\$350

인분 이상 주문시 소나로사 지역 배달해 드립니다

할인 세트메뉴 -

탕수육+짜장면2+음료수1 \$440 깐풍기+짜장면2+음료수1 \$420

※ 매주 월요일 정기 휴무, 확두라 발행, 카드결제

Praga No. 54, Zona Rosa, Cuauhtémoc, C.P 06600, CDMX Tel. 5511-2848 / 5511-3939 Cel. 55-1801-2313



RESTAURANTE COREANO





"전 세계 모든노래, 마음껏 골라 부를수 있다"



유튜브 노래를 이제부터 노래방의 파워풀한 사운드로 즐길수가 있습니다!

-내장된 수록곡 이외에 전세계 어느곡 이든 검색해서 투사 가능

영업시간: 월~목 19:00~01:00, 금~토 19:00~02:00

일요일 영업은 향후계획

예약문의: 한국어 81-8686-9701 스페니쉬/영어 81-8686-9724